

## 소비침체의 현상과 원인 진단<sup>1)</sup>

윤 우 진 · 이 원 복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younwooj@kiet.re.kr wblee@kiet.re.kr

동향분석실

### 〈요 약〉

최근의 소비침체는 2001~2002년간의 과소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에 따른 가계주체들의 소비 감축,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과 소비심리의 악화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10년간 가계소비지출을 보면 서비스 소비, 비소비성 지출 및 경직성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경제의 선진화와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를 소비침체가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가계부채의 누적이 만성화되면 소비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부채 누적의 주요인인 주택가격의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소비의 추가적인 침체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소비부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회복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자기대심리는 최근의 소비침체 양상에 비하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7분기 연속 100선 아래에 머물고 있어 급속한 소비회복이 가시화되어야 본격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수의 중요한 축인 소비의 진작을 위해 소득보전형 재정정책을 확충하면서 투자 활성화 → 생산 및 고용 확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부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1. 최근의 소비부진,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적인가

최근 들어 침체된 소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재의 소비부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총소득의 50% 이

1) 산업연구원, 「소비침체,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적인가」,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17호(2004. 8. 6)를 전재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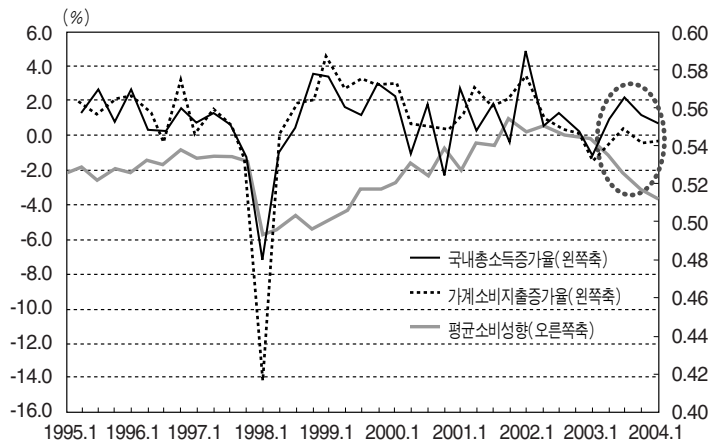
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계소비의 장기적 침체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먼저 소비부진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총소득과 가계소비의 증가율 및 양자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는 1998년 1분기를 저점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였으나, 곧바로 회복하여 2001년까지는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1분기를 고비로 소비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03년 1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침체를 보이고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0.52~0.53의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에 0.492로 급락한 후 V자형 회복을 보여 2001년 4분기에는 오히려 장기추세를 넘어선 0.554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여 2004년 1분기에는 다시 과거 추세를 하회하는

<그림 1> 소득 및 소비지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에서 작성.

주 : 1) 2000년 불변가격(계절조정치) 기준이며, 증가율은 전기 대비임.

2) 평균소비성향 = 가계소비/국내총소득

0.512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이론에 따르면 장기 평균소비성향은 안정적인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안정성이 훼손되어 최근 5~6년간 장기추세선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이상현상(anomaly)이 발생하였다.

결국 최근 소비추세 변화는 1998년의 일시적 소비충격에 따른 조정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최근의 소비부진은 2001~2002년 중 장기 평균소비성향을 넘어선 과소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소비침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된다.

## 2. 최근 소비패턴의 특징은 내구재 소비의 침체와 서비스 소비의 증가

최근 소비구조의 특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내구재를 포함한 내구재의 소비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 소비가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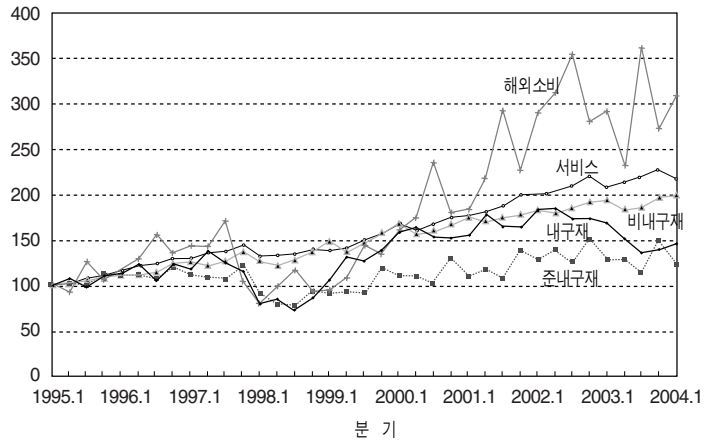
1995년 1분기를 100.0으로 할 때 내구재 소비는 2002년 2분기에 183.7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4년 1분기에는 144.9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서비스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4분기에 227.2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04년 1분기에는 약간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내구재 소비의 비중은 <그림 3>과 같이 1995년 1분기~2004년 1분기 중 9.3%에서 6.8%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소비의 비중은 50.5%에서 55.4%

로 증가하였다. 준내구재 소비와 비내구재 소비는 각각 내구재 소비 및 서비스 소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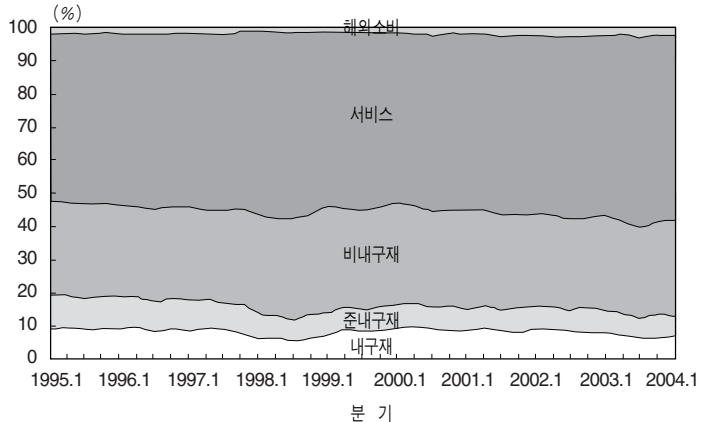
내구재의 소비감소와 서비스 및 비내구재의 소비증가는 다음 두 가지

<그림 2> 가계소비지출 항목의 변화 추이(1995년 1분기=100.0)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에서 작성.

<그림 3> 가계소비지출 항목의 비중 변화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에서 작성.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나는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 소비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증대의 둔화로 소비자들이 내구소비재의 신규구입이나 대체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적 현상이다.

2002년 하반기 이후의 내구재 소비감소는 경기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어 내구재 소비가 다시 늘어난다면 서비스 소비 비중의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4분기부터 내구재 소비는 5분기 연속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소비는 감소로 반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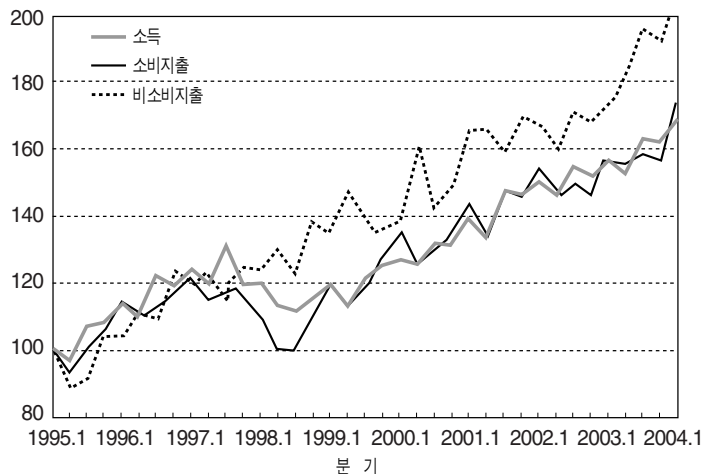
### 3. 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현재 소득의 영향 커져

도시근로자의 가계 지출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sup>2)</sup>로 나누어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은 소득과의 연관성에서 서로 다

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은 비소비지출에 비하여 소득과의 동행성이 뚜렷해지면서 소득증가시 소비지출은 더 많이 늘어나고 소득감소시는 더 많이 줄어든다. 이 같은 현상은 비소비지출의 고정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지출을 더 많이 줄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의 소비부진은 가계의 소비지출이 미래소득이나 금융자산 보다는 현재의 소득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소비에 대한 현재 소득의 영향이 증가하였다면 소비주체인 가계가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

<그림 4>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추이(1995년 1분기=100.0)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기본통계표」에서 작성.

2) 조세, 공적 연금, 사회보험 및 기타 항목으로 구성.

어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할 수 없거나, 소비구조가 소득탄력적인 형태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 4. 가계 소비지출은 점차 웰빙형 구조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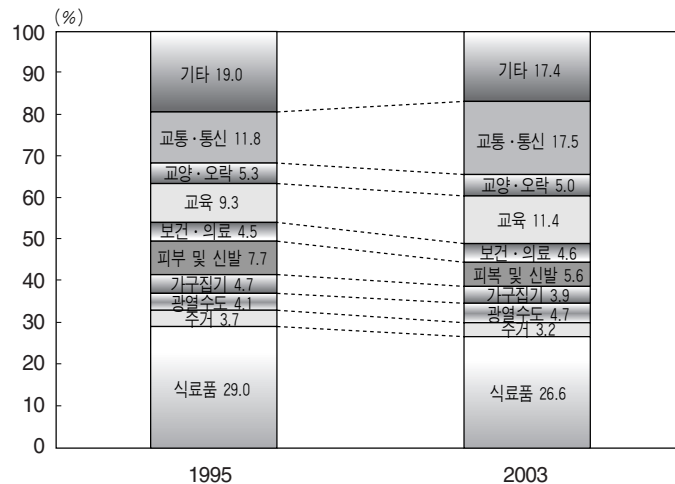
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보면 <그림 5>와 같이 식료품 등 기초생활 소비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서비스 소비와 보건·의료 등 웰빙형 소비의 비중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1995년과 2003년 두 시점의 소비지출 비중의 변화를 보면 식료품이 29.0%에서 26.6%로 하락한 반면, 교통·통신비와 교육비는 각각 11.8%에서 17.5% 및 9.3%에서 11.4%로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의 소비패턴이 의식주 중심형에서 서비스 소비와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웰빙형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sup>3)</sup> 의식주 등 필수적인 소비의 비중이 줄어들고 경기상황에 따라 수요의 조절이 쉬운 선택적 소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의 변동성이 커, 경기침체시 소비위축의 폭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택적 소비는 소득 탄력적으로 소비침체를 가중시키는 단기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장기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은 아니다. 물론, 최근 소비침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교육, 통신부문의

<그림 5>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변화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기본통계표」에서 작성.

3) 「한국경제신문」 2004년 6월 27일자는 최근의 소비패턴 변화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치추구형 소비행태로 변해가고 있다. 구매의 초점이 가격이나 품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품용도와 가격만족도를 합리적으로 따져 다양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생필품은 가격이 싼 것을 찾는 반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웰빙 상품은 가격보다 품질을 따진다는 분석이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져 소비특성(교육/IT환경)에 따라 선택적 소비가 필수적 소비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부문의 소비지출 구성비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소비침체에 동행하는 소득 탄력적인 단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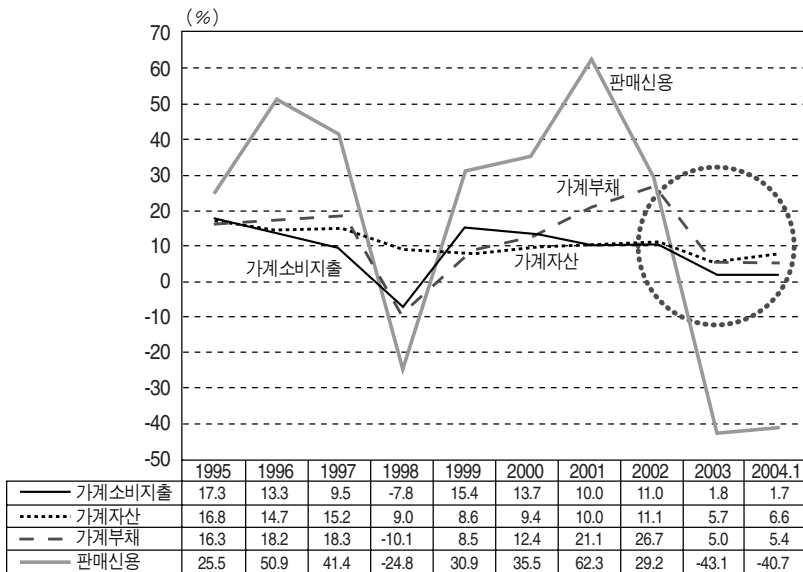
### 5. 소비지출은 가계부채 및 판매신용의 악영향에서 벗어날 전망

소비지출은 소득 이외에도 소비주체의 가계자산/부채가 가지는 富의 효과나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 구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은 가계자산 증가율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부채와 판매신용에 대해서는 각각 후행성과 동행성을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02년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증가가 주요 원인임을 감안할 때, 부채상환이 도래함에 따라 소비가 후행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매신용 역시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와 대출이 2002년부터 급감함에 따라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2004년에 들어서

〈그림 6〉 소비지출, 가계자산/부채 및 판매신용의 변화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가계신용」 및 「자금순환」에서 작성.

주 : 가계자산/부채는 금융자산/부채 기준.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 및 할부금융 회사 기준.

면서 판매신용 감소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어 소비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6. 소비 회복을 위해 중상위 소득 계층의 소비 증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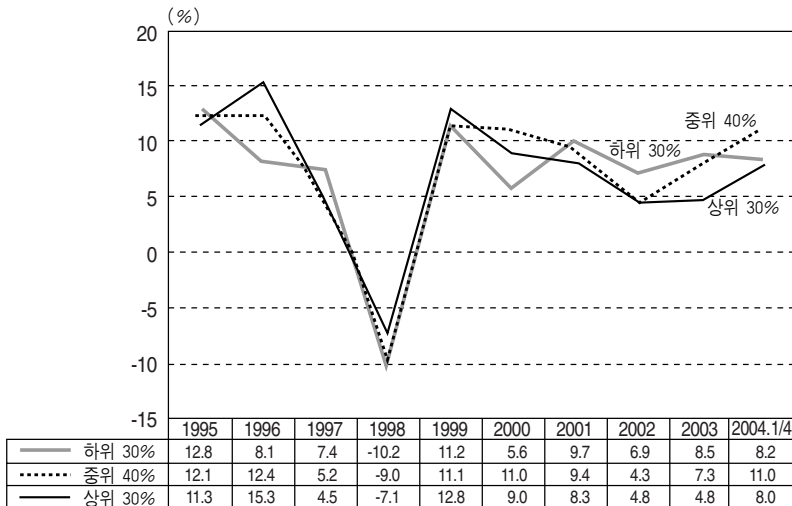
소득계층별로 소비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최근의 소비부진은 <그림 7>과 같이 중상위 계층의 소비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전까지 소비증가는 주로 중상위 소득 계층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이들 계층의 소비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중상위 소득계층의 소비 위축은 가계부채의 증대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00년 이후 하위 소득계층의 소비는 중상위 계층과는 달리 다소 경기역행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하위 소득계층은 소득과 부가 충분하지 않아 경기하강기에 차입이나 신용구매를 통하여 소비지출을 충당하고 경기상승기에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소비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하위 소득계층이 소비를 위해 부채차입-부채상환을 반복함에 따라 최근 2~3년간 소비증가율이 정체될 보이고 있다.

중상위 소득계층은 2002년에 소비증가율이 4~5%에 머물렀으나, 그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계층은 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많아 소비여력이 충분하여

<그림 7> 소득계층별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기본통계표(소득10분위별)」에서 작성.

심리적 소비위축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7.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비자 기대 다시 악화

최근 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소비자기대지수<sup>4)</sup>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4분기 중 100선에 근접했던 소비자기대지수는 금년 7월에는 다시 90선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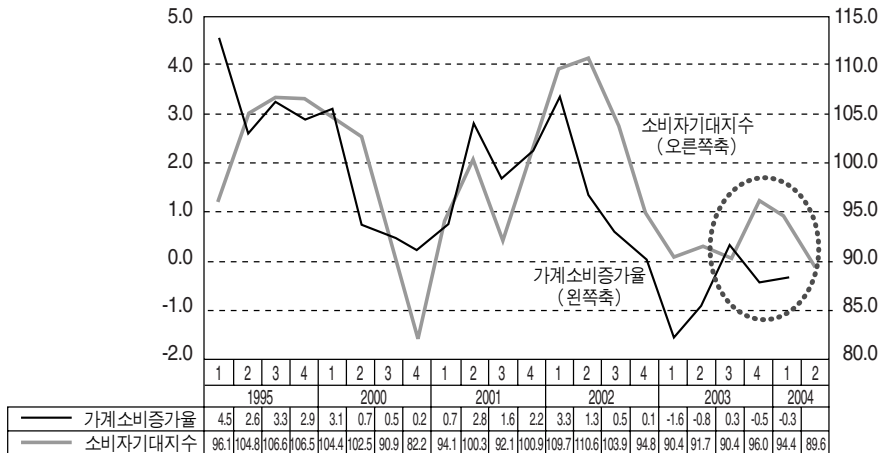
최근의 소비자기대심리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기대심리가 비록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7분기 연속 100선 아래에 머물고 있어 급속한 소비회복이 가시화되어야 본격적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8. 소득증대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소비 진작 긴요

최근의 소비부진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충격으로 가계주체들이 소비

<그림 8> 가계소비 증가율과 소비자기대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기본통계표 및 소비자전망 조사」에서 작성.

주 : 1) 가계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변화율임.

2) 소비자기대지수는 분기말 기준. 단, 2004년 2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7월 기준.

4) 6개월 후의 경기와 소비지출에 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임.



를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및 경직적인 비소비지출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 제약이나 소비심리의 악화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비스 소비, 비소비성 지출 및 경직성 소비의 증대는 경제의 선진화와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이를 소비침체가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가계부채의 누적이 만성화되면 소비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누적의 주요인인 주택가격의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소비의 추가적인 침체는 크게 우

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소비부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회복을 통한 가계 소득의 증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내수의 중요한 축인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보전형 재정정책을 확충하면서 투자 활성화 → 생산 및 고용 확대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부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실질구매력에 의해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소세 인하 등의 조치는 한계소비 증대에는 효과가 있으나 큰 폭의 소비진작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디지털 TV 등의 신규 잠재수요가 큰 내구소비재에 대해서는 가격인하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